
문장 성분과 호응

이관규 • 홍익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1. 들어가기

“이 자식이, 사람이 멧이나 죽였어?”

덕재가 다시 이리로 고개를 돌린다.

그 눈이 점점 빛으로 더해 가며, 제법 수염발 잡힌 입 언저리를 실룩거리더니

“그래, 너는 사람을 그렇게 죽여 봤니?”

이 자식이! 그러면서도 성삼이의 가슴 한복판이 환해짐을 느낀다. 막혔던 무엇을 풀려 내리는 것만 같다.

<황순원의 ‘학’에서, 밑줄 부분 바꿈>

이 글은 우리가 학창 시절에 즐겨 읽던 작품이다. 이 작품에 익숙한 독자라면 누구나 ‘어? 문장이 왜 이렇지? 뭔가 이상한데?’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다. ‘사람이 멧이나 죽였어?’가 아니라 ‘사람을 멧이나 죽였어?’ 해야지 말이 된다. ‘막혔던 무엇을 풀려 내리는 것만 같다’가 아니라 ‘막혔던 무엇이 풀려 내리는 것만 같다’라고 해야지 말이 된다.

그럼 왜 ‘사람을’, ‘무엇이’로 써야 하나? 그건 바로 서술어인 ‘죽이다’가 목적으로 ‘사람을’을 요구하기 때문이고, 또 서술어인 ‘풀리다’가 ‘무

엇이'라는 주어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어나 목적어와 같은 다른 성분이 서술어의 성격에 따라 나타날 때 이것들이 서술어와 호응한다고 한다.1)

2. 알기

흔히들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를 문장 성분이라고 한다. 서술어를 비롯해서 주어, 목적어, 보어와 같은 주성분이 있고, 이외에 관형어와 부사어와 같은 부속 성분, 그리고 독립어와 같은 독립 성분도 있다. 이들 중 문장 구성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히 주성분이다. 특히 서술어가 다른 주성분들의 출현 여부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쳐서, 서술어가 무엇이나에 따라서 이와 호응하는 문장 성분이 달라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거센) 바람이 불었다.
 영화는 (인형처럼) 예뻐다.
 이것이 (내가 말한) (그) 책이야.

위에서 서술어 역할을 하는 ‘불다’, ‘예쁘다’, ‘책이다’는 각각 ‘바람이’, ‘영화는’, ‘이것이’라는 주어를 필요로 한다. 만약 주어가 나타나지 않으면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어 하나만을 필요로 하는 서술어를 한 자리 서술어라고 한다. 결국 주어가 서술어에 호응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소괄호 속에 든 ‘거센’, ‘내가 말한’, ‘그’는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어일 뿐이며, ‘인형처럼’은 역시 뒤에 오는 서술어를 수식하는 부사어일 뿐이다. 어떻게 보면 뒤의 성분을 수식하니까 이들 수식 성분이 뒤의 성분과 호응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1) 문장 성분과 호응이라 하면 여러 가지 유형을 떠올릴 수 있다. ‘결코 ~ 아니다’처럼 부사어가 서술어와 호응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고, ‘만약 ~ -으면’처럼 부사어가 어미와 호응하는 것도 들 수 있고, ‘벌써 먹었니?’에서처럼 시간 부사어와 시제 어미가 호응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것들은 대부분 특수한 부사어(또는 부사)가 보이는 특수한 현상이라 하겠다. 여기서는 제한된 지면으로 서술어와 다른 문장 성분이 보이는 호응 현상에만 한정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문장 성분과 호응’을 다룬다고 하면 서술어를 중심으로 하여 다른 문장 성분들이 어떤 호응 양상을 보이는지 살피는 것을 떠올린다.

덕재가 밥을 먹었다.

얼음이 물이 됐다.

그는 군인이 아니야.

얼음이 물로 됐다.

나는 철수와 싸웠다. / 그들은 싸웠다. / 그들은 났았다.

위에서 ‘먹다’라는 서술어는 주어 ‘덕재가’와 목적어 ‘밥을’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 ‘되다’는 주어 ‘얼음이’와 보어 ‘물이’를, ‘아니다’는 주어 ‘그는’과 보어 ‘군인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들 서술어는 주어 이외에 목적어나 보어를 반드시 요구한다 해서 두 자리 서술어라고 한다.

그런데 “얼음이 물로 됐다.”에서는 두 자리 서술어 ‘되다’가 보어가 아닌 필수적 부사어 ‘물로’를 반드시 요구하고 있다. 만약에 ‘물로’가 없으면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나는 철수와 싸웠다’도 마찬가지다. ‘싸우다’는 ‘나는’이라는 주어와 ‘철수와’라는 필수적 부사어를 동반해야만 한다. 따라서 서술어 자릿수를 논할 때 부사어 가운데 꼭 있어야 하는 필수적 부사어를 넣어야 한다. 필수적 부사어 역시 서술어와 필수적으로 호응하는 성분이라는 것이다.

‘싸우다’, ‘났다’와 같은 서술어가 두 개 이상의 성분을 요구한다고 할 때, 그 필수적 성분은 의미적으로 복수를 뜻하면 된다. “그들은 싸웠다.”라는 문장이 성립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곧 서술어 자릿수는 본래 통사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의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철수가 먹이를 개에게 주었다.

아빠는 할머니께 용돈을 드렸다.

그는 성훈이를 양자로 살았다.

그는 영희를 애인으로 여긴다.

서술어 중에는 필수적 문장 성분을 세 개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도 있다. ‘주다’, ‘드리다’, ‘삼다’, ‘여기다’ 같은 것들이 그런 것이다. 위에서 ‘주다’는 주어 ‘철수가’, 목적어 ‘떡이름’, 필수적 부사어 ‘개에게’를 반드시 요구하고 있고, ‘드리다’도 주어 ‘아빠는’, 목적어 ‘용돈을’, 필수적 부사어 ‘할머니께’를 요구하고 있다. ‘삼다’도 주어 ‘그는’, 목적어 ‘성훈이름’, 필수적 부사어 ‘양자로’를, 그리고 ‘여기다’도 주어 ‘그는’, 목적어 ‘영희를’, 필수적 부사어 ‘애인으로’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곧 주어, 목적어, 필수적 부사어가 서술어 ‘주다’, ‘드리다’, ‘삼다’, ‘여기다’와 호응하고 있음을 뜻한다.

결국 문장에서 서술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문장 성분과 호응’ 문제에서 서술어가 어떤 특성을 가졌느냐가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어, 목적어, 보어, 필수적 부사어 모두 서술어의 특성에 따라서 나타나고 나타나지 않고 하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주어, 목적어, 보어, 필수적 부사어가 다 잘 갖춰져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서술어의 요구가 만족되는 것은 아니다. 개별 문장 성분들이 갖는 의미적 조건이 어찌면 통사적 조건보다 호응에서 더 중요할 수도 있다.

- 떡재가 밥을 먹었다.
- *나무가 밥을 먹었다.
- *떡재가 산을 먹었다.

예컨대 서술어가 ‘먹다’라고 하면, 주어는 먹을 수 있는 사람이나 동물이 와야 하고 목적어로는 먹을 수 있는 것이 와야 한다. “떡재가 밥을 먹었다.”라는 문장에서 주어 ‘떡재가’, 목적어 ‘밥을’이 이런 의미적 조건을 충족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만약 그렇지 않고 “*나무가 밥을 먹었다.”, “*떡재가 산을 먹었다.”라고 한다면 서술어 ‘먹다’가 요구하는 주어, 목적어 성분이 오지 못한 것이다. 결국 서술어에 호응하는 문장 성분은 통사적 조건과 의미적 조건이 모두 맞아야 한다고 할 수 있다.

3. 가꾸기

이제부터는 서술어와 다른 문장 성분의 호응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문장을 제시하고 올바르게 가꾸어 줌으로써, 문장 성분의 호응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여기에 제시되는 자료들은 최근의 주요 신문에 게재된 광고문에서 뽑은 것임을 밝혀 둔다.

문장 성분의 호응 문제에서 가장 두드러진 오류는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이다. 특히 주어의 지나친 생략 때문에 문장의 주술 관계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 우리 몸의 소중한 건강방패인 간(肝)은 한 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겨레. 2005. 10. 22. 1쪽. 밑줄은 필자>
=> 우리 몸의 소중한 건강 방패인 간(肝)은 한 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손상된 간은]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2)

위 글에서 밑줄 친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의 주어가 나타나 있지 않는데, ‘손상된 간은’이나 ‘그런 간은’ 정도의 주어가 있어야 한다. ‘그런 간은’이 가능한 것은 앞에 ‘한 번 손상된 간은’이 있기 때문이다. 광고문에서는 ‘우리 몸의 소중한 건강방패인 간은’이라는 주어가 생략된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그것은 ‘악영향을 줄 수 있다’의 주어로 적절하지 않다. 주어 생략이 지나치게 되어 있는 경우라 하겠다.

- 이번 조사는 최근 급변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복지, 주거의 질 등과 같은 사회 현상을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앞으로의 관련 분야의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한겨레. 2005. 10. 24. 2쪽. 밑줄은 필자>
=> 이번 조사는 최근 급변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복지, 주거의 질

2) 화살표(⇒) 뒤에 제시한 것은 필자가 설명상 필요한 것 위주로 교정한 것이다. 대괄호([]) 속에 제시한 것은 추가하거나 교체를 한 것이다. 화살표(⇒) 뒤에서 띄어쓰기는 어문 규정에 맞게 고쳤다. 이하 마찬가지이다.

등과 같은 사회 현상을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그 조사 결과는] 앞으로의 관련 분야의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위 글에서 밑줄 친 서술어 ‘설계되다’와 ‘사용되다’에는 동일한 주어 ‘이번 조사는’이 제시되어 있는데, 앞의 것은 서술어와 호응이 되지만 뒤의 것은 되지 않는다. 곧 ‘이번 조사는 … 설계되다’는 가능하지만, ‘이번 조사는 … 사용되다’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이 아니라 ‘그 조사 결과는’이 와야 ‘사용되다’와 호응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이는 주어를 지나치게 생략하여 잘못된 문장이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수입대행형태의 기존 업체와는 차별화된 공급 시스템을 갖추어 중간수입상, 에이전트를 통하지 않고 미국 대형 라이선스 회사로부터 직수입 공급하므로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명품브랜드 아울렛입니다. <조선일보 2005. 10. 21. B16쪽. 밑줄은 필자>

=> [우리 회사는] 수입 대행 형태의 기존 업체와는 차별화된 공급 시스템을 갖추어 중간 수입상, 에이전트를 통하지 않고 미국 대형 라이선스 회사로부터 [물건을] 직수입 공급하므로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명품 브랜드 아울렛입니다.

위 글에서는 주어와 목적어를 지나치게 생략하고 있다.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주어 ‘우리 회사는’과 목적어 ‘물건을’이 들어가야 올바른 문장이 된다. ‘우리 회사는 … 갖추어 … 통하지 않고 … 직수입 공급하므로’ 식으로 되어야 한다. 서술어 ‘갖추다’, ‘통하다’, ‘직수입 공급하다’와 호응하는 주어로 ‘우리 회사는’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직수입 공급하다’라는 서술어는 목적어를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므로 목적어 ‘물건을’ 정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회사는’과 ‘물건을’은 통사적으로 주어와 목적어라는 호응 조건만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다. 만약에 주어와 목적어로 어느 것이든지 와도 상관없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학교를’도 가능해야 할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는 곧 서술어가 요구하는 의미적 호응 조건에 맞추어 그에 맞는 것이 해당 성분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통사적 호응 조건과 의미적 호응 조건이 모두 만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선생님!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놀이 좋아하고 숙제도 가끔 안해오던 평범한 아이 방원이의 한마디였습니다.

에듀윙영재교실 프로그램 2달만에 자신이 개발했다며 자신의 방법으로 풀어가는 방원이의 모습을 보고 선생님으로서의 희열을 느낍니다. <소년한국일보. 2005. 10. 24. 1쪽. 밑줄은 필자>

=> “선생님! 저는 [그것과] 다르게 생각합니다.”

놀이 좋아하고 숙제도 가끔 안 해 오던 평범한 아이 방원이의 한마디였습니다.

에듀윙 영재 교실 프로그램 두 달 만에 자신이 개발했다며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 가는 방원이의 모습을 보고 선생님으로서의 희열을 느낍니다.

위 글에서 세 번째 문장은 ‘풀어 가다’라는 서술어가 목적어를 갖추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여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제를’ 정도의 목적어를 보충해 주어야 통사적, 의미적 호응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선생님,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에서는 ‘다르다’가 비교의 대상을 필요로 하는 서술어이기 때문에 ‘그것과’ 정도의 필수적 부사어도 나와야 된다. 여기서 ‘그것’이란 ‘선생님의 의견’ 정도가 될 것인데, 이는 ‘다르다’라는 서술어가 필수적 부사어로 요구하는 의미적 호응 조건을 만족시켜 주는 성분이다.

- 전자파는 특허청으로부터 전자파제거기능을 가지는 침대와 전자파를 차단하는 특허침대이며 이사장은 공인환경관리기사로 2004년 친환경 최우수상을 받을만큼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다. <조선일보. 2005. 10. 22. A10쪽. 밑줄은 필자>

=> [수백 돌 침대는] 전자파 제거와 전자파 차단 기능을 가진 [특허 침대이며], 이 사장은 공인환경관리기사로 2004년 친환경 최우수상을 받을 만큼 [환경에도]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다.

위 글은 ‘수맥 돌침대’를 선전하는 광고문 중 일부이다. 그런데 의미적 호응 조건을 만족시켜 주는 주어 ‘수맥 돌침대는’이 안 보이고 필요 없는 ‘전자파는’이 들어가 있어서 문제가 된다. 또한 ‘특허청으로부터’라는 부사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는 서술어인 ‘침대이다’와 호응하지 않는 것으로 불필요하다. “전자파제거기능을 가지는 침대와 전자파를 차단하는 특허침대”는 연결 대상이 서로 어울리지 않으므로 ‘전자파 제거와 전자파 차단 기능을 가진 특허 침대’로 고치는 게 좋다. 그리고 뒤 부분에서 ‘이 사장이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 문맥상으로 볼 때, 통사적 및 의미적 호응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필수적 부사어 ‘환경에도’ 정도가 들어가야 올바른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3)

4. 나오기

지금까지 문장 성분과 호응 문제에 대해서 알기와 가꾸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서술어 중심 언어로서의 우리말에서는 서술어에 호응하는 주어, 목적어, 보어, 필수적 부사어가 통사적·의미적 특성에 맞추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실제 국어 생활 속에서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예를 신문 광고문을 통해서

3) 사실 이 글은 두 문장으로 나누는 게 자연스럽다. ‘전자파는 …… 특허침대이며’ 부분과 ‘이사장은 …… 갖고 있다.’ 부분은 다른 의미 차원을 다룬 것이어서 전체를 한 문장으로 길게 쓰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를 고려하여 자연스럽게 교정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수맥 돌 침대는 특허청으로부터 전자파 제거 기능을 가지는 침대라는 특허 인증을 받았다. 그리하여 이 사장은 공인환경관리기사로 2004년 친환경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위 글은 ‘특허청으로부터’를 살리고 그에 맞춰 ‘특허 인증을 받다’로 서술구를 새로 작성한 것이다. 이는 주어 등 다른 문장 성분이 서술어에 호응한다는 본고의 기본 전제와 어긋나게, 다른 문장 성분에 호응하여 서술어를 바꾼 문장이다. 결국 호응이라는 말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기준과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겠다.

살폈고,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지도 제시해 보았다.

우리말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우리말에 대해서 알 뿐만 아니라 올바르게 사용할 줄도 아는 것도 포함해야 한다. 알기만 하고 사용할 줄 모른다면 진정한 앎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 글에서는 문장 성분이 호응하는 문제에 대하여, 먼저 의문을 품고 정확히 알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가꾸는 식으로 논지를 전개하였다. 결국 알기와 가꾸기를 중심으로 문장 성분과 호응의 문제를 다룬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 국어 생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법 교육을 소망한다.